

10-03 (통권 제430 호)
2010. 1. 26.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

VIP REPORT

한·독·일 제조업의 현황 비교와 시사점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이장균, 이철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한·독·일 제조업의 현황 비교와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한·독·일 제조업의 현황 비교	2
3. 정책적 시사점	11
■ HRI 경제 지표	14

■ 제조업 기반 경제의 중요성 대두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조업이 취약하고 금융산업에 의존적인 경제의 위험성이 부각된 바 있다. 또한 독일과 일본은 90년대 초반 통일과 자산 버블 붕괴라는 큰 충격을 겪었으나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을 기반으로 여전히 G7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독일 및 일본과의 현황 비교를 통해 국내 제조업의 취약점을 알아보고 한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독·일 제조업의 현황 비교

(성장 속도) 첫째, 산업 활력은 한국 제조업이 독일과 일본에 비해 높다. 한국 제조업의 2000년대 실질 생산증감률은 연평균 6.6%로 이는 현재 독일과 일본의 수준은 물론 이들 국가들의 경제발전 단계가 한국과 비슷했던 시기인 80년대 생산 증감률 (1.6% 및 4.5%)보다 빠른 수준이다.

(시장점유율) 둘째, 국내 제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미약한 수준이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2000년 이후 2%대 후반을 유지하다 2009년 상반기에서야 3%로 올라섰다. 더구나 고부가 고기술 제품 위주의 선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2.3%에서 1.8%로 낮아졌다. 특히 2007년 기준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품수는 한국이 53개로 독일의 851개, 일본의 234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동생산성) 셋째, 1인당 생산성이 독일과 일본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다. 2006년 기준 국내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약 5만 3,000달러로 독일의 8만 2,000달러와 일본의 8만 4,000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가가치 창출력) 넷째, 높은 수입유발효과로 부가가치의 국외 유출이 과도하다. 2005년 기준 한국 제조업의 수입유발계수는 최종수요 한 단위당 0.333으로 독일(0.285), 일본(0.167)에 비해 높다. 수입유발계수 값 0.333의 의미는 한 해 동안 제조업이 1억 달러 어치의 생산을 할 경우 그 중 약 3,330만 달러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이다.

(기술) 다섯째, 독일 및 일본과 큰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 기술무역수지비 (기술수출액 ÷ 기술도입액)를 통해 기술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2007년 기준 한국은 0.43으로 독일의 1.11과 일본의 3.49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제조업 내에서 R&D투자가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이후 독일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 정책적 시사점

국내 제조업의 취약점을 해결하여 한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제조업의 수요 시장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부품·소재 산업 육성, 에너지 절약형 생산공정 유도 등을 통해 부가가치의 과도한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 **셋째**, 제조업으로의 생산 파급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 지원 서비스 산업을 육성을 통해 제조업-서비스산업의 균형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연구 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1. 개 요

○ (분석 배경) 제조업 기반 경제의 중요성 대두

-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는 탈(脫)공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선진국으로 가는 보편적인 경로로 인식
- 그러나 이번 서브프라임 시장 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조업에 기반을 두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이 큰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
 - 예를 들어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미국, 영국 등 상당수 생산 시설이 해외로 이전되고 금융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록 독일과 일본이 각각 90년대 이후 통독에 따른 후유증 및 버블 붕괴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큰 경제적 위기 없이 여전히 경제 부국 G7의 위상을 유지

○ (분석 목적) 독일, 일본과의 현황 비교를 통해 한국 제조업 취약점을 파악

- 최근 국내 일부 산업의 수출 실적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한국 제조업의 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실제로 우리 제조업의 위상이 강화된 것인지를 알아 보고자함
- 나아가 독일, 일본과의 현황 비교를 통해 한국 제조업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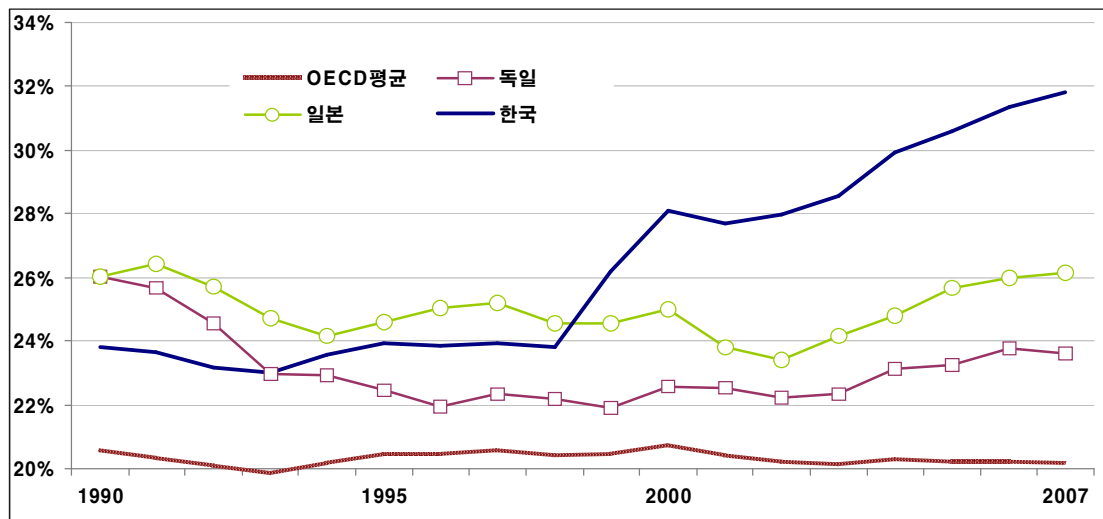
2. 한·독·일 제조업의 현황 비교

(1) 한·독·일 제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 제조업의 생산 비중

- 독일은 실질 제조업생산이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탈(脫) 공업화가 진행, 2000년 이후에는 비중이 높아지는 공업화 강화 현상이 발생
 - 독일의 제조업 생산 비중은 1970년 34.7%에서 2000년 25.1%로 하락, 2007년에는 25.9%로 다소 상승
- 일본은 1970년 이후 최근까지 제조업 생산 비중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일본의 실질 제조업 생산 비중은 전 기간에 걸쳐 약 25% 내외 수준을 기록

< 실질 GDP 대비 실질 제조업 생산 비중 >



자료: OECD 국별 국민계정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실질 가격 기준(constant prices, constant PPPs, OECD base year), OECD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21개국 비중의 산술 평균치.

- 한국은 최근까지도 제조업 생산 비중이 높아지는 공업화 현상이 지속
 -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1970년 10.2%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 31.8%로 상승
 - 한국의 제조업 생산 비중이 최근에 들어서도 상승하는 이유는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 때문이라는 견해가 존재

- 3국 모두 제조업 생산이 GDP의 4분의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한국 제조업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
 - 한국의 2007년 현재 제조업 생산 비중은 31.8%로 독일의 1980년 제조업 생산 비중과 유사한 수준

○ 제조업의 고용 비중

- 실질 생산 비중과 달리 고용 비중 측면에서는 3국의 탈공업화가 뚜렷하게 진행
 - 독일의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27.4%에서 2007년 19.0%로 하락
 - 일본의 제조업 고용 비중도 같은 기간 23.4%에서 17.4%로 축소

- 특히 한국의 제조업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
 - 1991년과 2007년의 제조업 고용 비중 감소폭은 한국이 10.0%p로 독일의 8.4%p, 일본의 6.0%p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전산업 취업자수 대비 제조업 취업자수 비중 >

	1991	2000	2007
독 일	27.4%	20.7%	19.0%
일 본	23.4%	19.1%	17.4%
한 국	27.6%	20.3%	17.6%

자료: OECD STAN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Total Employment, Number Engaged 기준.

○ 제조업의 성장 기여율

- 199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대 들어 3국의 제조업 생산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급등

- 한국 제조업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90년대 33.4%에서 2000~2007년의 기간 동안 41.7%로 크게 상승
- 한편 독일과 일본의 같은 기간 제조업의 경제 성장 기여율도 각각 33.4% 및 36.2%를 기록

※ 제조업 성장 기여율 40%는 경제성장률이 5%일 때 이중 2%p가 제조업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는 의미

< 제조업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 >

	1970~1980	1980~1990	1990~2000	2000~2007
독 일	21.1%	20.5%	8.3%	33.4%
일 본	25.1%	28.9%	17.1%	36.2%
한 국	27.8%	27.5%	33.4%	41.7%

자료: OECD 국별 국민계정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실질 가격 기준(constant prices, constant PPPs, OECD base year).

(2) 한·독·일 제조업의 현황 비교

○ 제조업의 성장 속도

- 독일의 2000년대 연평균 실질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70년대와 80년대 수준

- 독일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90년대 연평균 0.7%에서 2000년대에는 1.9%로 상승
- 독일의 2000년대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1970년대의 1.8% 및 1980년대의 1.6% 수준과 유사

- 일본도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높아졌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증가율에는 못 미치는 수준
 - 일본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1990년대 연평균 0.8%에서 2000년대 2.2%로 상승
 - 그러나 1970년대의 4%대 중반의 생산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 하는 수준
- 한국의 2000년대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전 기간에 걸쳐 하락 추세가 뚜렷
 - 한국의 제조업 실질생산 증가율은 1970년대 연평균 14.1%에서 지속 하락하여 2000년대 6.6%로 하락 추세를 지속
- 그러나 한국의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여전히 높아 향후 제조업이 경제 성장 견인의 주도적 역할을 할 전망
 - 한국 제조업의 2000년대 실질 생산증감률은 독일과 일본의 경제 발전 단계가 한국과 비슷했던 시기인 80년대 생산 증감률(1.6% 및 4.5%)보다 빠른 수준
 - 독일과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 진입 시점은 각각 1987년 및 1988년

< 제조업의 연평균 실질생산 증감률 >

	1970~1980	1980~1990	1990~2000	2000~2007
독 일	1.8%	1.6%	0.7%	1.9%
일 본	4.6%	4.5%	0.8%	2.2%
한 국	14.1%	11.2%	7.8%	6.6%

자료: OECD 국별 국민계정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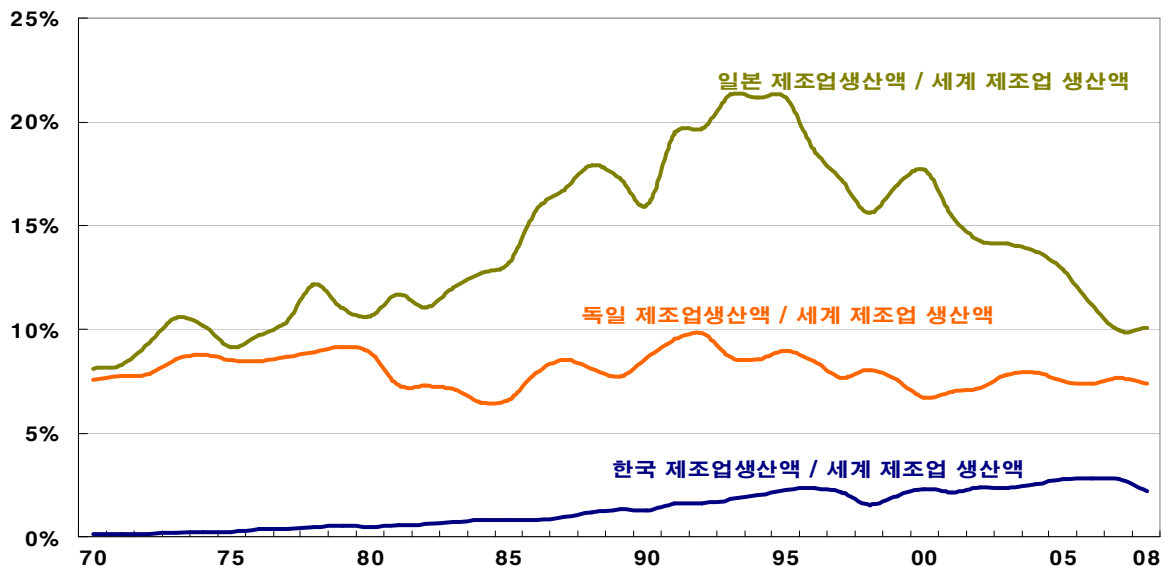
주: 실질 가격 기준(constant prices, constant PPPs, OECD base year).

○ 미약한 세계시장 점유율

- 한국 제조업 생산액이 세계 제조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과 일본에 비해 미약한 수준
 - 2008년 한국 제조업 생산액이 세계 제조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독일(7.4%)의 약 10분의 3, 일본(10.1%)의 약 10분의 2 수준

- 최근 한국 제조업은 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일본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했던 것과 같은 모습은 발견할 수 없음
 - 70년대 이후 독일 제조업의 생산액이 세계 제조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 내외 수준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
 - 일본 제조업의 생산액 비중은 90년대 중반까지 증가(최대 약 21% 수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 제조업 생산액 비중은 외환위기 직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3% 미만을 유지하고 있음

< 세계 제조업생산액에서 각국 제조업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 >



자료: UN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명목 달러 기준, 세계 제조업생산액은 216개국의 제조업생산액을 모두 합한 것임.

○ 선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정체

-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3% 내외 수준을 기록
 - 한국산 제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3%, 독일과 일본 제품의 점유율은 각각 8.6% 및 4.8%를 기록

- 2000년 이후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대 후반을 유지하다가 2009년 상반기에 들어 3%를 기록
- 독일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약 9% 내외 수준에서 소폭 등락하다가 2007년 이후 다소 하락하는 모습
- 일본 제조업 제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7.8%를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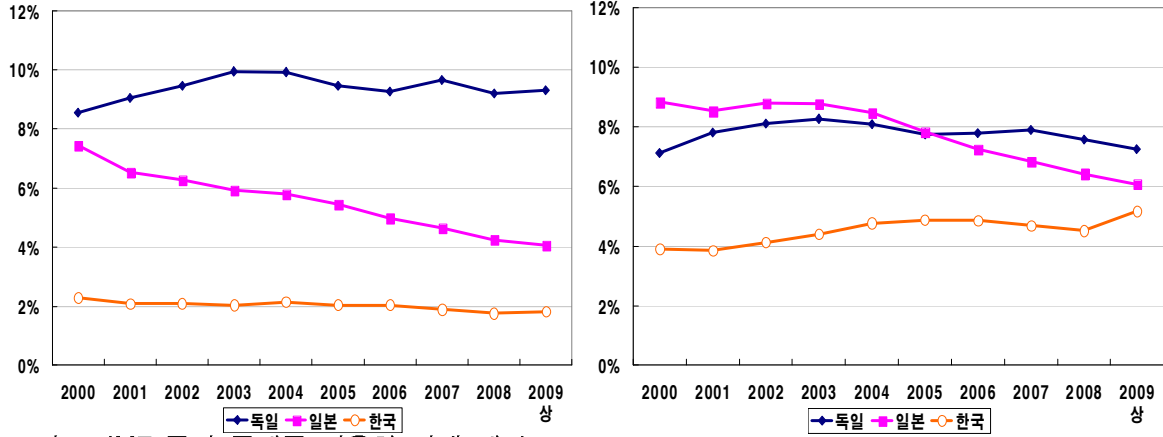
< 세계 수출시장에서 3국산 제품의 점유율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상
독 일	8.2%	8.8%	9.1%	9.5%	9.4%	9.0%	8.8%	9.1%	8.7%	8.6%
일 본	7.8%	7.0%	6.9%	6.6%	6.5%	6.1%	5.7%	5.3%	5.0%	4.8%
한 국	2.7%	2.5%	2.6%	2.6%	2.9%	2.9%	2.9%	2.8%	2.7%	3.0%

자료: IMF 무역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 한국산 제품과 독일·일본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선진국 수출시장에서 더 큰 격차를 나타냄
 -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선진국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한국산 제품이 1.8%로 독일산 제품의 9.3%, 일본산 제품의 4.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 2009년 상반기 기준 선진국수출시장은 전세계 수출시장의 65%를 차지
 - 중후진국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한국산 제품이 5.2%로 독일산 제품의 7.3%, 일본산 제품의 6.1%와 큰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모습
- 특히 고부가가치·고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선진국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음
 -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선진국 수출시장에서는 하락(2000년 2.3%에서 2009년 상반기 1.8%)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중후진국 수출시장에서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3국 제품의 선진국수출시장 점유율 > < 3국 제품의 중후진국수출시장 점유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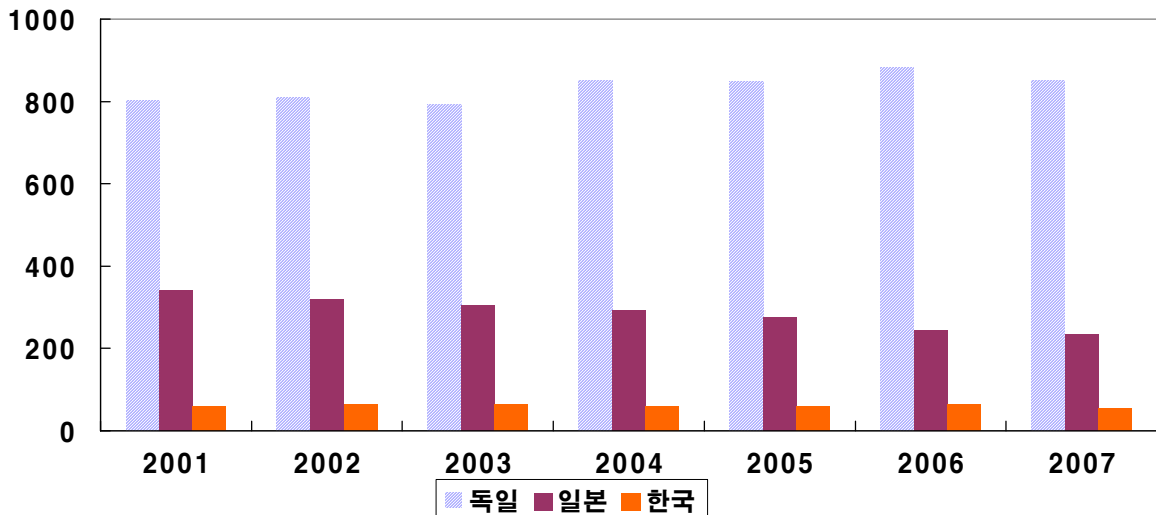


자료: IMF 무역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 일류 수출 상품의 부족

-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상품수는 독일의 6%, 일본의 2% 수준에 불과
 - 2007년 기준 한국의 세계 시장점유율 1위 상품 개수는 53개로 독일의 851개, 일본의 234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3국의 세계 시장점유율 1위 상품 개수 >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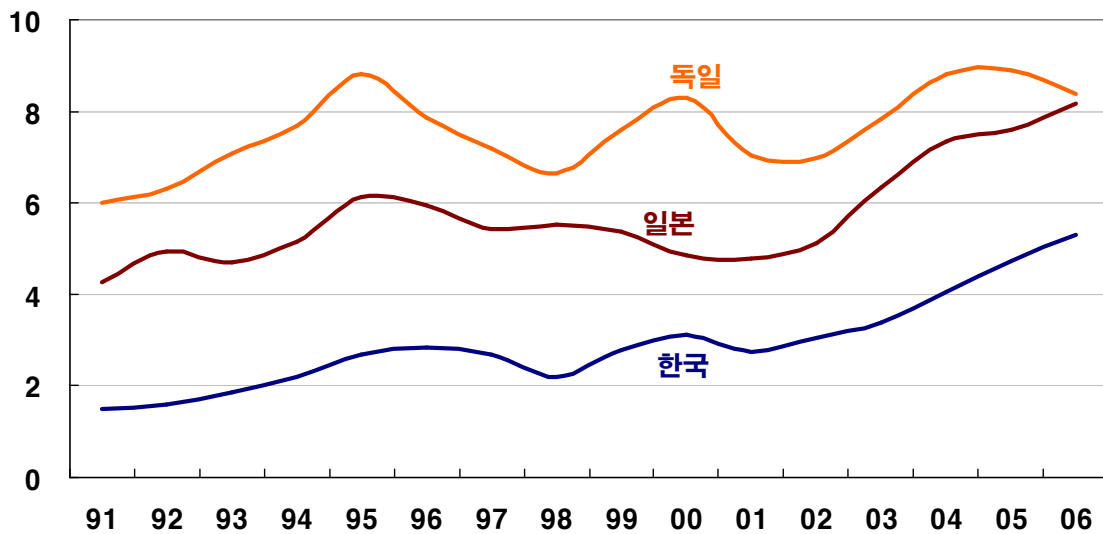
주: 각 연도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확정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낮은 노동생산성

-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독일과 일본에 크게 뒤처지는 모습
 - 인당 노동생산성 =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 ÷ 제조업 취업자수
 - 2006년 기준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한국이 약 5만 3,000달러, 독일과 일본이 각각 8만 2,000달러 및 8만 4,000달러

- 그러나 독일과 일본에 대한 한국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
 - 한국의 인당 노동생산성은 1991년 일본의 약 25% 수준에서 2006년 63% 수준으로 격차가 상당폭 좁혀지는 모습

<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생산액 (만달러/인) >



자료: OECD STAN, UN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 높은 수입유발효과

- 한국 제조업의 수입유발효과가 독일과 일본에 비해 크게 높아 부가가치(경제적 이익)의 과도한 해외 유출 문제가 존재

- 2005년 기준 한국의 수입유발계수는 최종수요 한 단위당 0.333으로 독일의 0.285와 일본의 0.167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기록
- 특히 중화학 공업의 경우 한국의 수입유발계수는 0.404로 독일의 0.314, 일본의 0.198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 ※ 한국의 제조업 수입유발계수 값 0.333은 한 해 동안 제조업이 1억 달러를 생산을 할 경우 그 중 약 3,330만 달러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의미

< 수입유발계수(2005년 기준) >

		제조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독	일	0.285	0.256	0.314
일	본	0.167	0.136	0.198
한	국	0.333	0.262	0.404

자료: OECD IO 테이블을 이용한 자체 계산.

주: 제조업은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수입유발계수의 단순 평균치임.

○ 기술 격차의 존재

-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 대비 제조업 내 R&D 투자액 비율은 2004년 까지 독일과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
 - 독일의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 대비 제조업 내 R&D 투자액 비율은 1995년 이후 최근까지 약 7%대를 유지
 - 일본은 1995년 약 8% 수준에서 2006년 11% 수준으로 증가
 - 한국은 2001년 이후 R&D 투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 이후 독일의 R&D 투자 비율을 상회

< 제조업 R&D투자액 /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독일	6.7%	6.9%	6.9%	7.1%	7.5%	7.6%	7.6%	7.7%	7.9%	7.7%	7.5%	7.6%
일본	7.9%	8.1%	8.5%	8.9%	9.1%	9.3%	10.0%	10.4%	10.2%	10.2%	10.7%	11.0%
한국	5.8%	6.3%	6.4%	5.4%	5.2%	5.7%	6.7%	6.9%	7.3%	7.5%	8.0%	9.0%

자료: OECD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 그러나 현재 한국의 기술 수준은 독일과 일본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기준 기술무역수지비는 한국이 0.43으로 독일의 1.11과 일본의 3.49보다 크게 낮은 수준
 - ※ 기술무역수지 비(比) = 기술수출액 ÷ 기술도입액
 - 최근 한국 제조업 내 R&D 투자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연구개발투자가 체화되고 제품에 적용되는 데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 독일,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축소되기 어려움

< 기술무역수지비(억 달러, 배)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기술 도입액 (A)	독일	210	217	233	259	298	328	384
	일본	45	43	49	52	64	61	60
	한국	26	27	32	41	45	48	51
기술 수출액 (B)	독일	146	166	232	287	343	367	427
	일본	103	111	130	164	184	204	211
	한국	6	6	8	14	16	19	22
기술무역 수지비 (B÷A)	독일	0.69	0.76	1.00	1.11	1.15	1.12	1.11
	일본	2.27	2.56	2.68	3.12	2.88	3.37	3.49
	한국	0.23	0.23	0.25	0.34	0.36	0.39	0.43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주: 기술무역수지비 = 기술수출액 ÷ 기술도입액.

3. 정책적 시사점

첫째,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제조업의 수요 시장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 국내 제조업이 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내수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시장을 보다 확대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중동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요구됨

-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출 공조 시스템 구축,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통·물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시장에 대한 FTA 확대, 세일즈 외교의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둘째, 부품·소재 산업 육성, 에너지 절약형 생산 공정 유도 등을 통해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 국내 제조업의 수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부품·소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 높아 전·후방 효과와 같은 산업간 연관성이 낮기 때문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소재와 관련된 원천 기술의 R&D 투자 확대,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노력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야 함

- 특히 새로운 부품·소재 부문의 경우 국제 표준의 선점이 시장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함


셋째, 제조업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 지원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 제조업에 대해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집중적 육성이 요구됨
 - 예를 들어 통신업은 통신기기 제조업의 전방 산업의 역할을 하며 의료서비스 산업이 의료기기 및 제약 산업의 성장을 견인함

- 사업서비스, 유통·물류 서비스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동반 성장에 주력해야 할 것임

넷째,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 우리 상품의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하이엔드 (High End)제품에 대한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함
- 또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의 정부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원천기술 연구는 리스크가 높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정부의 참여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임 

주 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02-3369-4030)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6	2007	2008 ^P	2009 ^E					2010 ^E		
				1/4	2/4	3/4	4/4 ^E	연간 ^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5.2	5.1	2.2	-4.2	-2.2	0.9	6.4	0.2	4.5	
	최종소비지출 (%)	5.1	5.1	1.6	-2.0	0.9	1.7	4.4	1.3	3.5	
	민간소비 (%)	4.7	5.1	0.9	-4.4	-0.8	0.8	4.7	0.1	3.3	
	총고정자본형성 (%)	3.4	4.2	-1.7	-8.1	-2.7	-0.8	1.2	-2.6	4.9	
	건설투자 (%)	0.5	1.4	-2.1	1.6	3.7	2.7	2.3	2.6	3.2	
	설비투자 (%)	8.2	9.3	-2.0	-23.5	-15.9	-7.4	10.3	-9.1	9.5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	54	59	-64	86	132	103	101	421	18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161	146	-133	30	170	102	124	426	261.6
		수출 (억 \$)	3,255	3,715	4,220	744	907	950	1,046	3,646	4,120.4
		증감률 (%)	(14.4)	(14.1)	(13.6)	(-25.2)	(-20.8)	(-17.4)	(12.3)	(-13.6)	(12.9)
		수입 (억 \$)	3,094	3,568	4,353	714	737	848	921	3,221	3,855.2
증감률 (%)	(18.4)	(15.3)	(22.0)	(-32.7)	(-35.8)	(-31.0)	(0.7)	(-26.0)	(19.7)		
소비자물가 상승률 (%)	2.2	2.5	4.7	3.9	2.8	2.0	2.3	2.8	3.1		
실업률 (%)	3.5	3.2	3.0	3.8	3.8	3.6	3.6	3.7	3.4		
국제유가(평균, Dubai, \$/배럴)	62	68	94	44	59	68	75	62	85		
원/달러 환율 (평균, 원)	956	929	1,103	1,418	1,286	1,239	1,176	1,280	1,110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